

SECTION 1.
파리의 보헤미안 (A Bohemian in Paris)

섹션 1은 프랑스 기존 체제에서 아웃사이드였던 '보헤미안' ('보헤미안'이란 표현은 또한 체코 지방 출신의 이국적 인물들을 의미 하기도 한다)으로서의 무하의 초기작을 들여다봄과 동시에 어떻게 이 '이국적인' 예술가가 당시 프랑스 최고의 여배우였던 사라 베르나르(1844-1923)를 위해 디자인한 지스몽다 이 단 한 장의 포스터로 어떻게 전환점을 맞이하였는지를 살펴본다. 탄탄한 아카데미 교육을 보여주는 초기 드로잉뿐만 아니라 삽화들을 보여주는 이 설치는 사라 베르나르를 위한 일련의 포스터들과 그녀와 연관된 다른 작품들로 이어진다.

This section looks at Mucha's beginnings as a 'bohemian', an outsider of the French establishment ('Bohemians' also mean exotic people from the Czech regions), and how this 'exotic' artist made an extraordinary breakthrough with the single poster Gismonda, designed for Sarah Bernhardt (1844-1923), the greatest French actress at the time. The display features examples of his illustrations as well as early drawings that demonstrate his solid academic training, followed by a series of his posters for Sarah Bernhardt and other works associated with her.



SECTION 2.
'무하 스타일'의 창시자 (The Creator of 'Le Style Mucha')

섹션 2는 특히, 여성의 이미지와 꽃, 자연에서 가져온 모티브뿐만 아니라 숨겨진 예술적 철학을 이용하여 어떻게 그만의 예술적 방식으로 '무하 스타일'을 발전 시켰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890년대에 들어 포스터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 시각 문화의 중심지를 점령했다. 컬러 석판화의 발달과 벨 에포크의 상업 문화 속 광고에 대한 수요 증가 덕에 아티스트들은 새로운 예술 형태를 탐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도시의 광고판들은 거리의 전시장이 되었고 무하의 사라 베르나르를 위한 첫 번째 혁명적인 포스터는 섬세한 파스텔 톤과 신비스런 비잔틴 효과, 독특한 구성과 구도로 파리 미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By the 1890s posters had taken centre stage in the visual culture of the French capital.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colour lithography and increasing demands for advertising in the commercial culture of the Belle Époque, artists were given opportunities to explore this new art form. The city's hoardings became 'street galleries' and Mucha's first revolutionary poster for Sarah Bernhardt, with its subtle pastel colours and mystical Byzantine effects as well as its unusual format and composition, brought 'a breath of fresh air' to the Paris art scene.

SECTION 3.
코스모폴리탄 (A Cosmopolitan)

섹션 3에서는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위해 제작된 작품과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그가 이룩한 성과들을 보며 국제적 유명인으로서의 무하를 살펴 본다. 20세기로 전환되는 무렵에 발달한 '아르누보 양식(the Art Nouveau)'과 더불어 무하의 명성이 커져감에 따라 그의 이름은 당시 시각 예술 시장에 큰 방향을 일으킨 새로운 트렌드 그 자체가 되었다. 세계 미술 시장에 우뚝 선 그의 위치를 반영하듯 무하는 1900년 개최된 파리 만국 박람회의 다양한 분야의 전시와 프로젝트에 참가하였다. 1904년 무하가 생애 최초로 미국을 방문할 당시 그의 방문은 뉴스 1면에 대서 특필 될 정도였다. 뉴욕 데일리 뉴스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장식 예술가'라 보도하였듯이 무하는 유명한 예술가로 자리매김하였다.



Featuring Mucha's works for the Paris Exhibition of 1900, as well as his achievement in the United States (1904-9), this section will portray Mucha as a cosmopolitan and international celebrity. Mucha's artistic fame grew, in parallel with the development of the Art Nouveau movement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and his name became synonymous with the new trend of visual art spreading internationally at the time. Reflecting his prominent standing in the international art world, Mucha was involved in a wide range of exhibitions and projects at the Paris World Exhibition of 1900. In 1904, when Mucha travelled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first time, his visit became newspaper headlines. Described as 'the Greatest Decorative Artist in the World' by New York Daily News, Mucha became a celebrity artist.

SECTION 4.
신비주의자 (The Mystic)

19세기 말에 활동하던 많은 유럽의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처럼 무하도 영성론(靈性論)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잘 알려진 스웨덴 출신의 극작가 '아우구스트 스티린드베리(August Strindberg)'와 친분을 쌓으며 점차 그의 신비철학에 매료되었다. 무하는 또한 파리에 위치한 '신지(theopophical)학' 모임에 들어가 1898년에는 '프리메이슨(Freemasons)' 조직의 파리 지부에 가입하였다. 무하는 그의 석판화 연습을 이어갔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 1923년에 프리메이슨의 체코 지부 총 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번 구성에는 영성론(靈性論)이 그의 예술적 철학과 그의 스타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본다.

Like many European artists and intellectuals in the late 19th century, Mucha was drawn to Spiritualism. He was friendly with the renowned Swedish dramatist, August Strindberg, and he was deeply influenced by Strindberg's mystic philosophy. Mucha was also close to a theosophical circle in Paris, and in 1898 he joined the Paris Lodge of Freemasons. Mucha continued his masonry practice, and after returning to his homeland, Mucha became Grand Master of the Czech Freemasons in 1923. This section will look at how Mucha's Spiritualism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his artistic philosophy and style. The display here will show a selection of pastel drawings, which demonstrate his desire to express emotions – the internal world.



The original text is written by Tomoko Sato, Curator of Mucha Foundation

SECTION 5.
애국자 (The Patriot)

파리와 미국에서의 성공 이후, 1910년 무하는 마침내 그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30여 년 전 고향인 이반치체를 떠난 이래 줄곧 무하는 조국을 위한 작품을 제작하는 방향으로 주도된 삶을 살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특히 무하는 그의 아망이 담긴 20점의 거대한 캔버스 (6x8미터 상당의 크기인 작품 포함)에 그려질 <슬라브 서사시(The Slav Epic)> 작품의 제작 준비를 하고 있었다. 슬라브 민족의 역사를 묘사한 작품을 통해 무하는 모든 슬라브 동포의 정신적인 통합과 그들과 함께 정진하여 모든 슬라브 국가의 공통된 목표인 정치적 독립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 구성에서는 무하가 조국을 위해 제작한 두 가지의 기념비적 작품인 프라하 시청사의 시당실에 그린 벽화와 슬라브 서사시를 볼 수 있다.



After a successful career in Paris and the United States, Mucha finally returned to his homeland in 1910. Ever since his leave from Ivančice 30 years before, Mucha's life had been driven by a vision to work for his homeland using his art. Over the past 10 years, in particular, Mucha had been making preparations for his ambitious project, The Slav Epic, which would consist of 20 enormous canvases (the largest measuring approximately 6 by 8 meters). Depicting the history of the Slavonic civilisation Mucha hoped to unite spiritually his fellow Slavs, and to inspire them to work together for their common goal –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Slavonic nations. This section will highlight Mucha's two important national monuments: murals for the Municipal House of the City of Prague (Obecní dům), and The Slav Epic.

SECTION 6.
예술적 철학자 (The Artist-Philosopher)

1918년에 세계 1차 대전이 종식하며 무하의 새로운 조국 체코슬로바키아가 건국됨에 따라 그의 꿈이 현실이 되었다. 무하가 그토록 바라던 슬라브 민족의 통합은 이제 인류애로 확대되어 그는 이 주제를 탐구하며 남은 생애를 보냈다. 특히 그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 또 다른 전쟁이 유럽을 강타할 즈음에는 이성, 지혜, 사랑의 시대의 새로운 3부작 제작에 착수하였다. 비록 이 작품이 1939년 그의 죽음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현존하는 습작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인류가 지닌 세 가지 특징인 이성, 지혜, 사랑으로 인류가 그들의 진보와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무하의 유토피아적인 사상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구성은 사랑과 믿음을 포함한 평화주의자로서의 그의 유토피아적인 철학 등 보편적인 그의 사상을 반영하는 작품들로 구성 되었다.

In 1918 Mucha's dream came true: as a result of the First World War, Mucha's new country, Czechoslovakia, was born. Mucha's vision for the Slavonic unity was now expanded to humanity, and he continued to explore this theme for the rest of his life. Especially in the last years of his life, when the threat of another war was approaching Europe, Mucha launched a new project, a triptych (1936-38): The Age of Reason, The Age of Wisdom and The Age of Love. Although the project was interrupted by Mucha's death in 1939, the surviving studies convey Mucha's Utopian message to us today: the balanced use of three human attributes - Reason, Wisdom and Love - would enable mankind to achieve their progress and peace. This section will feature the works that reflect Mucha's idea of universal love and faith, as well as his pacifism and Utopian philosophy.

